

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 古板本은 初刊本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板本으로 認定되고 있다.

3. 實錄本——世宗實錄 樂志에 國文歌詞만 手寫한 것인데, 誤寫가 가끔 있다.
4. 萬曆本——上記한 古板本 以外の 單 板本을 가지고 光海君 4年(萬曆 40年)에 複刻한 것. 奎章閣圖書에 太白山本과 五臺山本이 있다.
5. 順治本——孝宗 10年(順治 16年)에 아마도 萬曆本을 臺本으로 刊行한 듯한 複刻本이다. 改刻, 誤刻이 있다.
6. 乾隆本——英祖 41年(乾隆 30年)에 順治本을 複刻한 것으로서 傍點의 누락이 한층 더 甚해졌다.
7. 影印本——1937年과 1938年에 萬曆本中 太白山本을 影印하고, 古板本에 의하여 修正을 加한 板本.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 (國文歌詞)

許

雄

※ 本 發表는 錄音이 안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일로서, 國民學校學生에서 大學生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價値를 論議함은 새삼스러운 感이 없지 않으나, 이 機會에 한번 整理해 보는 것도 尠히 無意味한 일은 아닐것 같이 생각된다.

龍歌의 語學的 價値는, 그것이 訓民正音이 頒布되기 前에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卽 訓民正音으로 된 文獻 中에서 그 年代가 가장 오래된 것이란데, 그 첫째 重要性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年代가 오래 되었다는 것은, 最古의 語形을 보여주기 때문에 貴重한 것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龍歌의 그 방대한 記述은 大部分이 漢文으로 되었고, 그 가운데 125章의 노래만이 國語로 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 여기에 실려 있는 서기 15세기 순국어(漢字語를 除外)의 分量은 그리 많지는 못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單語의 數를 品詞別로 대충 간추려보면, 모두 433 單語가 된다.

名 詞	—	156	}	170 (體 言)
代 名 詞	—	11		
數 詞	—	3		
動 詞	—	186	}	220 (用 言)
形 容 詞	—	34		
副 詞	—	24	}	43 (修飾語)
冠 形 詞	—	19		

다만 이 數字안에는 助詞와 所謂 指定詞의 「-이다」는 除外되어 있으며, 品詞 分類의 方法에 따라서는 조금 그 分布가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다.

四百餘의 語彙는 國語의 全語彙의 不過 數百分의 一밖에 안되지만, 이 中에는 이와 거의 同時期의 文獻에는 나타나지 않는 말과, 또는 다른 文獻과는 그 表記法이 유독히 다른 말이 몇가지 나타나서, 일찍부터 注目을 끌어들었다.

다른 文獻에 나타나지 않는 말 :

「녀토-」: 녀토시고 쯔 기피시니 (20 章)

「스ᄃᆞᆫ」: 스ᄃᆞᆫ軍馬ᄃᆞᆫ이길썩 (35 章)

조ᄃᆞᆫ: 粟村(2:22)

「뻬우-」: 현번 뻬운ᄃᆞᆫ (48 章)

「날ᄃᆞᆫ」: 날ᄃᆞᆫ을 외오시니 (68 章)

「외오-」: //

「대ᄃᆞᆫ」: 물우ᄃᆞᆫ 대ᄃᆞᆫ (87 章)

「마ᄃᆞᆫ」: 마ᄃᆞᆫ에 ᄃᄃᆞᆫ 놀라니 (95 章)

「ᄃᆞᆫ-」: ᄃᆞᆫ아니 ᄃᆞᆫ시리 (116 章)

이러한 말들의 形態分析이나 意味 解釋은 어렵지 않으나, 다른 文獻에는 나타나지 않는 點으로 貴한 存在이다.

다른 文獻과는 表記가 다른 말 :

「셔ᄃᆞᆫ」: 셔ᄃᆞᆫ使者 (18 章)

月印釋譜에는 「셔ᄃᆞᆫ」로 나타나기 때문에 龍歌의 이 語形이 아니었다면, 兩 母音間의 ㅁ은 再構의 過程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서는,

「글ᄃᆞᆫ」: 글ᄃᆞᆫ로 ᄃᄃᆞᆫ ᄃᄃᆞᆫ (26 章)

文은 글와리라 (訓民正音)

「이ᄃᆞᆫ-」: 이ᄃᆞᆫ 남기 (84 章)

남기 다 이ᄃᆞᆫ며 (月釋)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나ᄃᆞᆫ가ᄃᆞᆫ (35 章)

ᄃᆞᆫᄃᆞᆫ 안자ᄃᆞᆫᄃᆞᆫ시니 (月釋)

그리고

「ᄃᆞᆫ-」: 軍馬 ᄃᆞᆫ니이다 (98 章)

의 動詞로서의 用法도 龍歌에만 보이는 것으로서, 月印釋譜에서는, 動詞로서는 「ᄃᆞᆫ-」가 되고, 오직 接尾辭로 쓰일 때만 「-ᄃᆞᆫ-」가 쓰이게 된다.

妄量ᄃᆞᆫ오. 疑心ᄃᆞᆫ. 상ᄃᆞᆫ 等 王 ᄃᆞᆫ야 겨ᄃᆞᆫ.(1:5)

이러한 語形의 母音間의 /ㅁ/의 存在도 모두 龍歌가 아니었다면 再構해내기

무척 어려웠거나, 不可能했을는지 모른다. 「이기-」도 月印釋譜에는 모조리 「이괴-」로 나타난다. (但 千江曲에는 「이가-」形이 보인다).

그리고

「가재」(7장) 形의 存在로, 「가지」의 古形이 *「갓」이었음을 알려준다.

母音調和의 規則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 있는 文獻도 龍歌다.

以上の 여러가지 點으로 보면, 그 다음 文獻과의 相距가 不過 數年 밖에 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龍歌는 다른 文獻에 比해 꽤 많은 古形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本題目과는 直接 關係가 없는 일이나, 註釋의 문제는 달리 取扱되지 않기로 여기 간단히 몇마디 附言한다.

龍歌의 註釋은 일찍 前間氏에서부터 始作되어, 지금은 거의 完全히 解釋되는 것이나, 몇가지 문제點을 들어둔다.

○軍馬 | 뵈니하다.(98장)

「뵈-」에 對한 筆者의 解釋은 「被見」의 뜻으로 했으나, 그 漢譯詩에 「若填騎士」로 되어 있어서, 「배다」(密)의 뜻으로 잡는 것이 나을듯하다.

館지비 뵈여 (南廣祐: 古語辭典) 그리고 다음 例도 이러한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釋迦 | 목수물 八十을 :뵈샤·디……

大通이 목수물 五百萬億那由他劫을

:뵈시·면…… (月釋 14:43)

○元良을 무우려라 (71장)

이 말도 그냥 「뵈우-」의 變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으-」~「뵈우-」의 語幹을 가진, 다른 動詞로 보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淨瓶을 무우려 하니 (千江曲, 其 68)

淨瓶을 뵈 무우니 (同 其 71)

六師이 무리…헛터리를 뵈무으리니(釋 6:27)

○느지르샷다(100장)

여기의 「-르-」는, 筆者는 「-드-」의 變異形態로 보고, 「-드-」는 「-더-」와 同一形態素로 보려 하였으나, 이것은 아직 解決되지 못한 問題에 屬한다. 劉昌惇氏는 強勢形으로 보아 「-도다」 「-두다」의 {도/두}와 連結지어 보려하고 있다. (東方學志 第6輯)

○궤히이시니(21章)

筆者는 龍歌 註解의 프린트版에서는, 이 語形이 「궤히야」 또는 「궤히어」(>*궤

히거)의 誤刻일 것임을 말한일이 있는데, 그뒤 印刷에 붙일 때는, 그와 對句인 「일위사니」와 步調를 맞추기 위해서 「꼴히야」쪽을 取하였다. 그러나 古板本과의 對照로, 「꼴히어」가 맞음이 判明되었다.

그리고 「하봉사」의 現代語形이 「혼자」인지, 「홀로」인지, 이에 대해서도 다른 意見이 存在한다.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 (人名·地名)

李 基 文

龍飛御天歌 125章의 國文歌詞은 매우 중요한 中世國語 資料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言語資料로서의 龍飛御天歌라면 그 國文歌詞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一般化되어 있다.

그러나 龍飛御天歌는 이 125章의 歌詞외에도 그 註解 部分에 正音으로 表記된 地名·人名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종래 無視되기 일수였으나 言語資料로서 매우 特異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다. 이 속에는 國語系 地名·人名 등도 적지 않으므로 中世國語 資料로도 珍重한 것이지만, 女眞語·蒙古語系의 地名·人名등이 또한 적잖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言語 特히 女眞語 資料로서도 매우 珍重한 것이다.

龍飛御天歌 註解 部分에 나타나는 正音 表記例는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모두 173이다.⁽¹⁾ 이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國語系, 女眞語系, 蒙古語系로 分類되며 또 그 混合도 보인다. 이제 이들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I. 國語 資料

國語系에는 地名이 가장 많다. 이들은 漢化되지 않은 中世國語 時代의 俗地名을 보여 주는 唯一한 資料로서 우리 나라 地名 研究에 있어 特記할 만한 것이다. 地名외에 擊毬 관계의 語詞가 다섯, 人名이 둘 나타난다. 그 大部分이 흥미있는 考究의 對象이 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注目할 만한 것으로는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고·마누르 (熊津) 3.15r

이 유명한 地名에 보이는 「고·마」는 熊을 指稱하는 古代 百濟語에 由來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정히 中世國語의 「곰」(熊)의 古形인데 그 無比의 重要性이 있다.

(1) 金允經박사의 調査는 174로 되어 있는 바(한글 130호, 1962) 「수양」(垂楊)의 一例가 잘못 포함되었다.